

전북대 문세연 교수, 제17회 김중조학술상 수상

전북대학교 문세연 교수(양자시스템 공학과)가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67회 한국진공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제17회 김중조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세연 교수

이 상은 전 에드워드코리아 김중조 회장이 기탁한 기금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국내 진공과학기술 및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회 정회원에게 수여되고 있다.

이에 문 교수는 한국진공학회 이사 및 플라즈마분과회장 역임 등 학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플라즈마 분야에서 탁월한 학술 논문 발표와 우수한 산학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세연 교수는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로운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 상을 한국진공학회의 발전과 국내 플라즈마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로 삼아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문 교수는 전북대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장 및 양자시스템공학과/나노융합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플라즈마 기반의 반도체 공정 기술, 표면처리 기술, 나노튜브 합성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연구를 진행해 왔다.

또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Nature를 포함한 100여 편의 국제 저널 논문을 출간하고, 6건의 산업체 기술이전을 했다. /장은성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에 힘 모은다

익산시-원광대병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 협약

익산시가 원광대학교병원과 함께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의료 지원에 힘을 모은다.

익산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진료 편의 강화를 위한 '익산시-원광대학교병원 의료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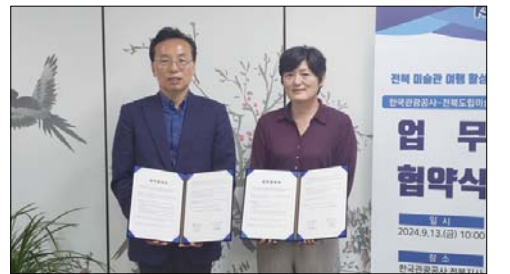
이번 협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진료에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과 치료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는 베트남 봉역을 제공하고 원광대학교병원은 진료비 일부 감면을 지원하기



로 했다. 익산시에는 107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85명이 근무하고 있다. 베트남 애아순현과의 계절근로자 공급 업무협약(MOU)으로 입국한 216명이 35농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 초청을 통한 근로자 189명이 72농가에

배치됐다. 정현을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진료 시 소용의 어려움 해결과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는 원광대학교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를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도립미술관-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협약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지난 13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오충섭)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도립미술관과 시·군 공립미술관의 다양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전북도가 갖고 있는 지역특화 미식과 치유 관광지와 연계해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치와 더불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다.

앞서 양 기관은 '브리콜라주: 그러모는 미술관 투어' 프로그램으로 도의 지역 방문객을 모집해 무주와 남원의 공립미술관을 방문하고, 문화관광축제를 참여하는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아리에 수준 높은 음악공연과 함께 이애선 관장이 도슨트로 참여하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애선 관장은 "전북은 다채로운 문화예술 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유한 지역으로, 이를 미술관 여행과 결합하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역 특화 관광객과 결합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체류형 여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 사랑 나눔 전달 행사 실시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지부장 김대호)는 지난 12일 완주군 용진읍에 위치한 경로당을 방문해 사랑 나눔 전달 행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싱크대가 노후화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역 어르신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완주군지부는 150만원 상당의 싱크대를 전달했다.

김대호 지부장은 "이번 전달 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농업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국제와이즈먼 한국 남지방 홍보클럽, 주거 환경 개선

국제와이즈먼 한국지역 남지방 홍보클럽(회장 이상운)은 지난 14일 수지면 지역주민중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57정에 현관 출입문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등을 해주었다.

위 대상자들 발굴경로는 1일 소용행정사무를 추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2023년 10월 19일 업무협약을 한 국제와이즈먼 한국지역 남지방 홍보클럽의 업무 협조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총 8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내외포카를 1가정, 갈촌마을 1가정, 서당마을 1가정, 유촌마을 1가정, 용강마을 1가정 총 57정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재능 기부를 한 국제와이즈먼 한국지역 남지방 홍보클럽은 "수지면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추석 광활면서 연합봉사 활동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14일 광활면에서 총 30여명의 봉사자들이(봉사단체 철봉회, 행복드림 가족봉사단, 이월로 청소년봉사단) 추석 명절을 맞아 노후 벽면을 도색하는 연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지역맞춤형 우수프로그램 지속사업(사업명:마음을 담은 색깔)을 진행하는 봉사단체 '철봉회'의 주도로 광활면의 취약 계층 2가구를 선정해 행복드림 가족봉사단·이월로 청소년봉사단과 함께 연합하여 노후 벽면 도색 작업을 실시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연합봉사를 통해 마음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제3회 진안 청년의 날 행사, 21일 공설운동장서 개최

진안청년들의 특별한 하루를 위한 행사가 21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안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는 지역청년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어주는 기회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청년들의 창의성을 격려하는 소중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 내의 청년단체인 진안 청년협의체, 웰라진안군 4-H 연합회, 진안청년회의소, 꿈꾸는 청년 농부들 총 4개 단체 주관으로 진행되며, "진안(진안) 별밤에"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지난별밤에 콘서트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음악을 즐기는 시간으로, 자연과 어울리는 어쿠스틱,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콘서트 가 열린다.

별빛을 마시다 '별빛 바(Bar)'는 6가지 종류로 구성된 각 테일과 세계맥주, 아이들을 위한 딸기·망고리제 등의 마실거리와 먹거리인 닭강정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4-H 연합회의 이름으로 기부된다.



마음사진관은 추억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과거의 소중한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사진으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우리 모두 별야는 각기 다른 성향의 청년들을 공통의 주제와 관심사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나에서 우리, 개인에서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별빛 전시는 지역 내 청년단체들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력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별야마켓은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즐길 수 있는 판매부스와 미스트세팅, 꽃다발 캠페인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진안 청년들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기획한 만큼 참가자들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동시에 지역 청년들의 열정과 재능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청년단체, 청년의 날 맛이 단체 헌혈 추진

진안군에 거주하는 청년단체 회원들이 오는 21일인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화제다. 이들은 청년의 날 행사를 시연에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단체 헌혈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헌혈이 팔로 생명을 나누는 뜻깊은 선행이라고 생각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행사의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김제시, 환경미화원 봉사단 출범식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9일 시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청소 업무에 대한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형성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봉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김제시 환경미화원 봉사단은 총 86명으로 청소차원과, 공원녹지과, 죽산면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과 퇴직자들로 구성된 명예 회원들이 함께 참여한다.

봉사단은 현장 일손돕기와 장학금 기부, 저소득층을 위한 물품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더욱 밀접하게 기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훈 봉사단장은 "시민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환경미화원들이 봉사 활동을 통해 친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남원 산내면, 취약계층 집중 살핌 실시

남원시 산내면(면장 이상근) 관계자는 가족관계 단절, 자녀 타지 역거주 등 고립된 독거어르신 및 1인가구 등 절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방문하여 집중 살핌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2일부터 13일까지 취약계층 집중살핌기간을 지정·운영하며 응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을 확보 구축하고, 난방시설과 전열기구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또한 15년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시는 삼화산원(여강스님)이 올해도 백미 30포와 라면 20박스 금150만원 상당을 기부하여, 홀몸어르신과 1인가구 위주의 가정방문을 통해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게 쌀과 라면을 전달했다.

이성근 산내면장은 "면에서는 독거어르신과 고립된 주민 등 관내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애항분부 등, 추석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남원시는 시 애항분부가 지난 14일, 남원역 광장에서 남원 로타리클럽, 남원시사랑들 등 봉사단체들과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을 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본부 관계자들은 고향에 도착한 귀성객들에게 정성스레 준비한 인절미와 시원한 식혜, 수정과 등을 건넬고 전통 떡메치기 체험도 진행하면서 고향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남원시와 협업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전단지 배부하고 사인머스켓, 김부각, 요거트, 참뽕 등 고향사랑기부 상품들을 시식하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날 고향을 찾은 한 귀성객은 "부모님의 품처럼 따뜻한 고향 남원에 오자마자 환한 웃음으로 환영해 주니 즐거운 마음으로 쉬었다 갈 수 있겠다"면서 비록 타지에 있지만 언제나 남원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사장을 방문한 최경식 남원시장도 "애항분부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동열 삼광바이오텍 회장, 고향사랑 500만원 기탁

부안군은 19일 김동열 삼광바이오텍(주) 회장이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삼광바이오텍은 부안군 부안읍과 김제시 봉황면에 위치한 유가농 자재와 공시 받은 골분비료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유가농을 보호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체이다.

김동열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부안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주신 김동열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소중한 뜻을 잘 새겨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힘써 지역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으로 지정기부사업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라' ESG사업, 어르신들의 뱃대를 도와주는 뽕송이 사업, 청년에게 주거 지원비 사업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